

교육심리

— 훌륭한 교사 —

최 정 훈
<연세대 교무처장>

교사에는 훌륭한 교사(Good teacher)로서 현실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있고 정반대의 훌륭한 못한 교사(Poor teacher)가 있다. “좋다” “나쁘다”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관에 의한 객관적 가치판단이지만 선생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선생을 논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49년까지 10년간 1006편, '49년부터 10년간 2000편의 교사의 Effectiveness에 대한 연구, 즉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고, up to date한 지식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하였지만, “좋은 선생님이다”하는 것과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하는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5,000여편에 달하는 논문을 살펴보면, 교사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자로서의 소양과 선생으로서의 소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무엇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에 따라 그렇게 실시되는 것과는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훌륭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고, 남과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독특한 Teaching method가 있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1962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자 대회에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102개의 List로 작성하였다. 1)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2) 본된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102)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끝나는 이 List의 결론은, 그렇게 갖춘 사람은 없지만 가까운 수록 좋다는 것이다.

윌버럼씨는, 좋은 스승은 다방면의 경험을 하

여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교육방법은 Teaching의 도구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룩되므로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교수자체의 문제이며, 교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좋은 교사란 일반적인 Confidence나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Humor와 Intelligence는 상관계수가 많다.

좋은 교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수십년 연구되어 왔으나 결론이 안나오는 것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다르기 나온 까닭이다.

따라서, Good teacher의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직업과 학생 및 자기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Good teacher가 되기 위한 주관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자아의식(Positive self regard)

자신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의식없이 자신이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Self-concep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Personality에 대한 General construct가 되어야 하고,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 든든해야 한다.

2. 타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이 긍정적으로 되고, 오히려라도 긍정적으로 볼때 그 결과는 긍정적이 되므로, 모든 학생들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졌으므로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3. 직업을 긍정적으로 본다.

자기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명감있게 행동하며, 보람을 느껴야 한다. Life space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을때 향상이 온다.